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o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웅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혜진 마리루시 (토포교보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이지연 안나레지나 917. 282. 1662

제1독서 | 사도 12,1-11

화답송 | 시편 34(33),2-3.4-5.6-7.8-9(◎ 5ㄴ 참조)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제2독서 | 2티모 4,6-8.17-1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태 16,13-19

영성체송 |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르셨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성가 | 입당 291 예물준비 216(217)
영성체 154(152) 파견 201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장석은 요셉
- 이성규 안드레아
- 조경형 안드레아
- 최진영 스테파노
- 진상봉 인덕마리아의 영혼을 위하여

생미사 지향

- 박혜화 도미니카
- 성령대회 참가자를 위하여
- 김린다 건강회복을 위하여
- 방태리 리오바
- Fr.이웅희 루카OFM
- Sr.안혜진 마리루시OSB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6월 29일	정유진	민완준	장민우	박성현	김종선	김수현 한서희
7월 6일	김유화	송명근	장민우	이경자	유종욱	한서희 이예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견진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마리루시 방문교리(환자/어르신) *신청: Sr.마리루시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새 교우분 맞이

새로 오신 교우분들을 위해 본당에서 <새신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사 후 다미아노 홀 친교모임에서 만남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월례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지하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646. 685. 7788 봉사자 원혜미 엘리사벳

예수성가정회 월례회

오늘 11:00AM. 프란치스코 룸.

문의: 858. 345. 0307(교육분과장 최병은 루치아)

2025년 성탄 세례반 모집

2025년 성탄에 세례 받으실 예비신자분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 2025년 8월 말까지

신청 방식: 신청서 작성/(양식신청 seoulosb@gmail.com)

신청/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성체 분배 봉사자 모집

세례 받은 지 20년 이상, 견진성사 받으신 분으로 미사 중 성체 분배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신청/문의: 646. 832. 7397 (Sr. 마리루시)

주일학교 대표교사 & 보조교사 모집

하느님께 받은 재능과 사랑을 바탕으로 아이들에게 주님 사랑을 전하며 가톨릭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도록 도와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교사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 지원 부탁드립니다.

모집 인원: 유치부 & 초등부, 중고등부

문의: 646. 287. 2582 교감 정승연 플로라

제42차 미 동북부지구 올뜨레야 대회

일시: 7월 4일 9:30AM-4:00PM

장소: 뉴저지 메이플우드성당

신청/문의: 929. 444. 1411(간사 민완준 필립보)

청년성지순례 1일 성지순례

주제: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를 것이다." (루카 10,6)

일시: 2025년 7월 6일(일) 1:00-4:00PM

장소: Met Cloisters 미술관

& St. Frances Cabrini Shrine

신청/문의: 714. 328. 0386(청년주보팀 단장 양정운 켄마)

제29차 2025 미 동북부 성령대회

일시: 7월19일(토) 오전9시-오후7시

7월20일(일) 오전9시-오후5시

장소: 펠리시안 대학교 (Felician University)

262 S. Main St. Lodi, NJ 07644

참가비: \$40

신청/문의: 917. 929. 4242(성령기도회회장 민재인 데레사)

미 동북부 레지오 마리아에 봉쇄교육

일시: 9월 26일(금) 4:00PM - 9월 28일(일) 5:00PM

장소: 뉴튼 수도원(Newton, New Jersey)

신청마감: 8월 31일(주일)까지

지도신부: 김정수(디다코) 신부

참가비: \$300(2박 3일 숙식비 포함)

* Check 발행 시 "Legion of Mary"로 발행

준비물: 성서, 레지오 교본 및 수첩, 묵주, 세면도구, 실내화, 간편한 옷차림, 정장(또는 한복) 한 벌.

신청/문의: 347. 633. 3767(꾸리아 단장 윤숙자 루시아)

Sr.마리루시 연중 피정 & 총회 참석

기간 : 7월 7일(월) ~ 7월 17일(목)

2024년 북미주 한인 수녀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연중 피정 및 총회에 참여하오니, 교우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기간 동안 사무실은 휴무이며, 각종 증명서 발급은 7월 17일 이후 가능합니다.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 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212.697.1802
색소 미백 레이저 카카오톡: clearlascity1
주름 보톡스, 필러 5th Ave & 42nd St
뉴욕 도서관 앞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한국 남도 7박8일 관광

지도자, 경영인 정신이해와
문화, 역사, 건강 체험.
혼자서 체험할 수 없는 남도 여행
고향사랑 국제 연대
847)269-9422
131 E 69th St. New York 10021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Clara Clara Inc.

맨하탄 사무실이나 기타 공간이
필요하신 분 연락바랍니다.
(917) 596-1460
306 W. 37th Street
New York, NY 10018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5 WEST 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Kwangsuk "Joseph" Kim

공인 부동산 중개사
Licensed real estate salesperson

408-220-4569
Furumoto Realty of New York City, Inc.
www.furumoto.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Q 희년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제는 5년도 더 된 일이지만, 서울 시내 어느 아파트 단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은 1차, 2차라는 이름으로 서로 구분되기는 하지만,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가 서로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가운데를 관통하는 도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도로의 유지보수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갈등이 커진 끝에 한쪽에서 다른 쪽의 차량 진입을 막는 말뚝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반대편 아파트 단지에서 철제 보안문을 설치하여 아예 사람도 못 다니게 막고, 해당 아파트의 주민에게만 통행할 수 있도록 열쇠를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 반대편 단지에서 바리케이드와 철조망까지 설치하여 삼엄하기 짝이 없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배타성의 장벽을 세우며, ‘우리’라는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내곤 합니다. 단순히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완고함에서 그러할 때도 있습니다. 종교가 달라서, 경제적 지위가 달라서, 성별이 달라서, 세대가 달라서,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 다른 이들을 ‘우리’가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고 밀어내곤 하죠. 심지어는 아파트 단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밀어내기도 한다니, 웃고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이 모든 종류의 차별과 혐오, 배타성과 불평등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발자취 중 하나가 바로 ‘희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50년 주기로 서로에게 진 빚을 완전히 탕감하고, 노예가 있으면 해방시키며, 하느님의 자비와 해방을 기억했습니다. 구약의 백성이라고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샀던 노예를 무상으로 해방시키는 것이 안 아까웠을까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먼저 해방시켜 주셨기에, 이스라엘에서 누리던 그 모든 삶이 가능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는 실천이 바로 구약의 ‘희년’이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 여정은 경제, 사회적 장벽을 허물어, 부유한 이들이 가난한 이들과, 지배하던 이들이 지배당하던 이들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하는 ‘희년’의 정신이 가득한 분이셨던 셈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여정을 성지순례로 이해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동안의 삶을 참회하고 하느님과 화해하며,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신약의 희년을 기리기 시작했습니다.

‘희년’을 맞아 드러나는 중요한 하느님 자비의 표지 중 하나는 ‘전대사’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벌을 대신 짚어 진 자비로운 분이심을 다시금 기억하고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하여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분의 자비를 충만하게 입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현재 희년은 바티칸에서 4대 대성전의 성문을 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닫혀 있던 문을 여는 예식은 우리가 서로에게 닫았던 마음의 문을 여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서로에게 철조망을 치고, 인터넷에서 악플을 날리며 혐오를 일삼는 이 시대에, 구원의 문을 여시는 주님 뒤를 따라,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세상을 향해 ‘희년’을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성심 성월 기도문

○ 자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굿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는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자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꿇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골한 교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성심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